

박해시기 선교사들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썼으며,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자신의 장상(長上)인 주교님이나 동료 신부, 고향의 친척 친지들에게 자신의 활동과 생활, 조선의 사정 등을 편지로 써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러한 편지들을 통해 선교사들의 사목 활동은 물론이고 당시 조선 신자들의 신앙과 생활 등을 엿볼 수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 가을호부터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로서는 1836년 최초로 조선에 입국하여 활동하다가 1839년 9월 21일에 군문효수형을 받아 순교한 모방 신부의 서한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 모방 신부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지도부에게 보내는 편지<sup>1)</sup>

[원문 112쪽]<sup>2)</sup>

+

예수 마리아 요셉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지도부

1836년 12월 9일<sup>3)</sup>

친애하는 동료 신부 여러분,

지난 4월에 저는 저의 조선입국 보고와 이 나라에 관한 몇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써 보내드렸는데, 그것을 받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저는 그동안에 조선 천주교회의 유래와 현황에 관하여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약 50년 전에 한 조선 학자[이벽]가 마테오 리치 신부가 한문으로 저술한 몇 권의 서적을 읽어가면서 ‘이 책들을 쓴 저자 리마두[리치 신부의 중국이름]의 주장은 분명히 참된 것이요, 확고한 근거가 있다’고 한 발행인의 서평을 주목했었습니다. 그는 보고 느낀 것을 몇 명의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한편, (저자의 주장에 관하여) 상세한 조사를 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역시 이(Ly) 씨라는 이름의 친구[이승훈]에게 조선의 국왕이 북경으로 보내는 연례 사신단을 따라가 북경에서 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라는 부탁을

1) 출처는 파리외방전교회 고문서고 1260권(MEP V.1260), ff.112~117로, 모방 신부의 자필본이다.

2) 원문 112쪽 : 이 서한은 편집 과정에서 잘못 정리되어 있다. 원문의 109~112쪽은 내용상 112쪽, 109쪽, 110쪽, 111쪽 순으로 배치해야 하며 113~117쪽은 순서가 맞다.

3) 작성일은 문서정리자가 썼다.

했습니다. (때는 1783년 늦가을이었습니다).

(북경에 간) 이(승훈)은 프랑스의 예수회 신부들이 (1700년 전후에 지은) 성당(북당<sup>4)</sup>을 찾아가 이 성당을 맡고 있던 프랑스 출신 라자로회 수도자들을<sup>5)</sup> 만나보았습니다. 켈랭(Gueslin) 신부<sup>6)</sup>가 이(승훈)에게 천주교 교리를 가르쳐 주었고 이(승훈)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천주교를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켈랭 신부는 이(승훈)에게 세례를 주면서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정하였고 여러 가지의 교회 서적을 주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승훈) 베드로에게 (켈랭) 신부는 영벌을 피하고 구원받기 위해 꼭 믿어야 하는 참되고 거룩한 신앙을 동포들에게 선포하라고 부탁하는 한편, 언젠가 북경으로 돌아와서 조선에서 전교하여 거둔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타일렀습니다.

조선에 돌아온 (이승훈) 베드로는 북경에서 보고 들은 것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가져온 교회서적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책들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은 천주교 교리를 참으로 좋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입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승훈)이 가져온 교회서적들을 보았거나 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계층과 제자들의 계층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자기들의 지도자들을 선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명의 주교와 적어도 3명의 신부를 자기들 가운데서 선임하였습니다.

(이승훈이 세례를 받은 지) 6년이 되었을 때에, 북경으로 간 조선교회의 대표들은 조선교회가 훌륭한 교계조직을 갖추고 놀랍게 발전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 (교회법에 어긋난 성직자) 조직이 즉시 해체되도록 하라”는 엄명을 받은 (대표들은) “그러면 선교사 한 분(이라도) 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는 대혁명으로 인하여 극심한 혼란에 빠져서 (프랑스 교회가) 선교지역으로 어떤 도움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신자들의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들어줄 수 없었던 켈랭 신부는 [원문 109쪽] 북경교구장 주교에게 조선 신자들의 요청을 전달하면서 조선으로 한 분의 선교사를 보내셔야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북경 교구장은 켈랭 신부의 부탁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는데, 그 조건은 조선교회는 자치 선교지역[대목구나 교구]이 아니라 지금대로 북경교구 소속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북경교구장 주교는 약 45년 전에<sup>7)</sup> 강남 출신 주(문모) 야고보라는 중국인 신부를 조선으로 보냈습니다.<sup>8)</sup>

4) 북당 : 당시 북경에는 북당으로 알려진 구세주 성당, 남당으로 알려진 무죄성모성당(주교좌성당), 동당으로 알려진 성요셉성당, 그리고 서당으로 알려진 성 미카엘 성당이 있었다.

5) 프랑스 출신 라자로회 수도자들을 : 모방 신부가 1784년 당시의 북경천주교회 사정을 잘 모르고 서술한 부분이다. 원래 북당 성당은 프랑스 예수회의 소관이었는 데 1773년 예수회 해산[1814년에 부활]으로 프랑스 선교사들이 철수했지만 1784년 당시 방다봉 신부와 그라몽 신부 등 6명의 예수회 신부가 남아 있었다.

6) 켈랭 신부 : 북경 주재 선교사 중 켈랭 신부는 없었고, 1785년에 북경에 도착한 길랭(Ghislain, Jean-Joseph, 1751-1812) 신부와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길랭 신부가 이승훈에게 세례를 준 선교사는 아니다. 이승훈은 1784년 2월에 세례를 받았는데, 길랭 신부는 1785년 4월에 북경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방다봉 신부의 1784년 11월 25일 서한에 의하면 이승훈에게 세례를 준 이는 그라몽(Grammont) 신부였다. 달레 워저, 안응렬 · 최석우 역주, 1979, 《한국천주교회사》 상권, 한국교회사연구소, 305~306쪽. (이하 《달레교회사》로 줄임)

7) 약 45년 전에 : 모방 신부가 이 서한을 작성한 1836년을 기준으로 보면 45년 전은 1791년이 된다. 그러나 주문모 신부는 조선에 입국한 해는 1795년 1월이었다.

(중국의 강소성 소주 출신의) 주(문모) 신부는 1년 동안에 조선말을 배운 다음에 성직 수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입국한 그 해나 그 이듬해에 조선의 국왕은 그리스도교 성직자인 어떤 외국인이 조선에 잠입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왕[정조]은, 주 신부의 입국을 주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던 세 명의 학자를 불러 그들에게 그리스도교에 관한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하였다가, 그리스도교에 대한 어떤 적대감도 표명한 일이 없이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 세 사람의 이야기에 매혹되었다는 생각이 난 국왕은 그 세 사람을 외딴 곳으로 불러 놓고 사형을 받게 하였습니다<sup>9)</sup>. 이 왕은 조선의 역대 국왕들 가운데 가장 학식 있는 왕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서적도 몇 권을 읽어본 국왕은, 천주교가 참종교라는 판단까지 내렸지만, 천주교를 신봉하기로 결심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신자가 아니면서도 신자가 되려고 하던 한 유복한 부인[강완숙]이, 주(문모) 신부의 안전을 염려하여, 자신의 집에 그분을 위한 보다 더 안전한 비밀 숙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외부의 사람들이 내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직적이고 대담하면서도 그 부인은 천주교의 윤리 도덕을 아직 몰랐습니다. 역시 신자가 아니었던 그의 남편은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자기 집에 주(문모) 신부를 위해서 은신처를 마련하고 제공하는 아주 비밀스럽고 대단히 중요한 일을 자기 남편과 상의해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는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은 남자들이 으레 최소한으로 한 명의 소실을 두는 악습이 있는데, 그 부인은, 주(문모) 신부와 어떤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선수를 쳐서 남편을 위해서 소실을 얻어주고 나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소실과 함께) 살도록 남편을 설득한 다음에, 주 신부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부인의 잘못을 알게 되자, 주 신부는 부인을 심하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왜 자기 남편을 다시 부르지 않고 다시 동거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현재에 저희들이 매우 불안하게 살지만, 그때의 신자들이 훨씬 더 불안하게 살았고, 주(문모) 신부도 매우 위험한 환경 속에 살아서 아무리 마음이 불편해도 그 부인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6년을 조선에서 보낸 주 신부는 방문할 수 있던 ‘교우촌’이 두어 곳에 불과<sup>10)</sup>하였고, 신자들은 다만 매우 요긴한 경우에만 그분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국왕[정조]은 천주교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알았기 때문에 천주교를 어느 정도 존중할 만한 종교로 보았

8) 켈랭 신부는 ... 보냈습니다 : 조선 신자들이 신부를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 (라자로회 프랑스관구 출신의) 길랭(Ghislain) 신부는 자진하여 조선으로 나오하고자 하였다. 이때에 라자로회의 관구장(대리)이던 로오(Raux) 신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북경교구장 구베아 주교에게 부탁했다. 포르투갈 출신의 구베아 주교는 조선교회를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북경 주교에 직속시킨다는 조건하에서 중국인인 주문모 신부를 보냈다. 이후 조선천주교회는 포르투갈 관구의 라자로회 북경교구장 관할에 들어가게 되었다.

9) 세 사람을 불러 놓고 사형을 받게 하였다 : 1795년 6월 주문모 신부가 체포의 위기에 처했다가 겨우 피신하고 대신 주 신부를 조선에 영입하는데 공헌했던 윤유일 바오로, 지황 사바, 최인길 마티아가 잡힌 사건이 일어났다. 이 세 명의 신자들은 포도청에서 심문을 받다가 정식 판결을 받지 않고 죽임을 당했고 시신은 강에 던져졌다. 이 사건이 와전되어 모방 신부 서한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10) 주 신부는 2곳이나 3곳의 교우촌만 방문했다고... : 신변 안전을 위해 사목 활동이 제한되기는 했으나, 주문모 신부는 신자들의 안내로 경기도의 양근과 여주, 전라도의 전주와 고산, 충청도의 남포, 공주, 온양, 연산 등지를 방문해서 성사를 집전했다.

였습니다. 그러나 (1800년) 국왕이 죽자, (수렴청정을 통해) 실권을 잡은 국왕의 어머니(영조의 계비인 대왕대비 정순왕후)는 자신이 혐오해온 천주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갖은 수단을 다 써서 천주교회를 소멸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1801년) **[원문 110쪽]** 천주교 신자들 모두를 잡으라고 명령하고, 천주교에 관하여 알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토하도록 잡힌 신자들에게 갖가지 고문을 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선에서 가해지는 여러 종류의 고문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주 신부는 체포된 신자들이 받는 고문을 알게 되어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오랫동안 숨어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여, 포졸들을 찾아가 자수하였습니다. 사춘기에 이른 (이들로부터 노인들까지) 남녀 신자들 모두가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습니다. 신앙을 굳건히 지킨 증거자들과, 배교하였다 해도 과거에 신앙 전파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 이들이 사형을 당하였고, 다른 배교자들은 무기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주 신부는 양쪽 귀에 한 개씩 꽃힌 화살이 머리 위에 서로 묶여 조선의 수도 서울 (Sehoul)에서 약 2마일[8리] 떨어진 곳[새남터]으로 끌려갔는데, 가는 길의 양쪽에 창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처형장에 도착하자 그 망나니들 중 하나가 신부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저는 주 신부의 시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으나, 아는 신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원문대조 · 역주 : 최세구(Jézégou) 로베르 신부 (파리의방전교회)



군문호수형(김윤보 형정도첩)



이벽과 이승훈



주문모 신부



112

M. M. Direct.  
Séminaire  
des Miss.  
Kiang.  
Paris.

21 + J. M. J. reçue le 18 mai 1838  
9 x bn 1836

Messieurs et très chers confrères,

J'ai eu l'honneur de vous envoyer en avril dernier le récit de mon entrée en Coïce avec quelques notices sur ce pays; je suppose que vous l'avez reçu et je passe à celui des connaissances que j'ai pu recueillir sur l'origine et l'état de la Religion chrétienne.

Il y a une cinquantaine d'années un lettré (selon parcourant quelques ouvrages composés en langue chinoise par le R. P. Mathieu Ricci observa dans les remarques de l'écrivain que la doctrine de M. Matteo (nom <sup>de Ricci</sup> de R. P. Ricci) leur auteur était vraie et de plusieurs fondements inébranlables, il fit part de cette nouvelle à quelques uns de ses amis et résolut d'en prendre des informations; il en vint à ce sujet à Pekin un de ses amis aussi nommé M. avec l'ambassadeur d'urou. L'entretenant l'église des R. P. Jésuites Français; alors gouvernée par les R. P. Français, M. Gueslin le récit lui fit l'apologie de la Religion chrétienne la lui fit goûter et embraser, il le baptisa sous le nom de pierre, lui donna une collection de livres chret. et le renvoya dans sa patrie lui recommandant deannoncer cette doctrine seule sainte, salutaire et absolument nécessaire aux hommes pour ne pas périr et souffrir éternellement; et de revenir ensuite raconter qu'aurait produit cette divine semence. De retour dans sa patrie pierre y exposa à ses amis les instructions qu'il avoit reçues à Pekin et communiqua les livres chrétiens qu'il avoit apportés; un grand nombre goûta les vérités saintes qu'il renfermoient et embrassa la Religion chrétienne, ils apprirent ou par la lecture de livres chret. ou par les relations de pierre et qu'il avoit deux classes de chrétiens dans l'église, l'église enseignante et l'église écoutante, ils s'imaginèrent pouvoit eux mêmes faire parmi eux cette distinction; ils élurent un évêque et au moins trois prêtres. Mais qui étoit propre de la divine semence en force on leur enjoignit de détruire cette organisation et qu'ils seroient de retour, ils demandèrent un Missionnaire. C'étoit le temps où la France en proie aux fureurs de la révolution ne pouvoit plus fournir à l'entretien de ses Missionn. de R. P. Gueslin ne put <sup>pas</sup> reconstruire leur vœux

[Provider:rearticle] Download by IP 121.190.18.182 at Saturday, September 14, 2019 6:35 AM



L'adresse à M<sup>onsieur</sup> de Fujin et le prix de huit envoies un Missionnaire. Le prelat a été <sup>10</sup>
 aux sollicitations du S. P. Gueslin <sup>mais</sup> à condition que cette nouvelle Mission lui appar-
 tienne. Il l'envoya il y a environ 15 <sup>ans</sup> un prestre chinois originaire du Kiang no nomme
 Jacques Tchou, le missionnaire papa un an à étudier la langue <sup>chinoise</sup> <sup>et commenca</sup>
 ensuite à exercer le M. ministère. la 1<sup>re</sup> ou 2<sup>e</sup> année le roi apprit qu'un étranger étoit
 ministre de la religion chrétienne et étoit entré dans son royaume, il fut appelé & l'écrit
 qu'il soupçonnoit auteurs de son introduction il leur fit diverses questions sur la
 religion chrétienne et le renvoya sans avoir manifesté aucune intention <sup>de</sup>
 ennemie de la Religion. quelque temps après il apprit que ces 3 lettres avoient <sup>lui en</sup>
 imposé il les appella de nouveau dans un lieu à l'écart et les fit mener à mort.
 On dit que c'étoit un des rois les plus sçavants qui aient regné en Corée, il avoit lu
 quelques livres chrétiens, il fut frappé de la vérité de <sup>la</sup> doctrine sainte de la Religion
 mais il n'eut pas assez de courage pour s'embrasser. Cependant une femme de
 <sup>forte</sup> <sup>bonne</sup> qui desiroit de se faire chrétienne, craignant pour le sort du pere
 Tchou lui prépara un azile dans <sup>son</sup> appartement, en Corée comme en Chine
 nul étranger ne peut pénétrer dans les appartements intérieurs. C'étoit une
 femme de tête mais peu instruite de ce que c'est que la morale, elle avoit une poup insé-
 comme elle alloit mais qui ne partageoit pas ses sentiments, elle n'étoit traitée
 avec lui une affaire aussi secrète et aussi importante que celle de cachet
 chez soi le pere Tchou, une pernicieuse coutume des grands est d'avoir au
 moins une concubine, sans aucun avis du pere, elle donna une concubine
 à son mari et l'envoya loin de la ville dans une maison de campagne, ensuite
 elle s'en vint chez elle le pere Tchou chez elle, lorsqu'il apprit la faute de cette femme
 il la reprima d'assez séchement dit-on, pourquoi cette femme ne rappella-t-elle
 par son mari? sans doute le cas du pere Tchou fut très difficile, il parait que
 les temps étoient plus difficiles encore qu'ils ne sont aujourd'hui, le pere Tchou
 ne peut sortir que dans deux ou trois endroits, pendant tout l'espace
 de 6 ans qu'il vécut en Corée, les chrétiens ne pouvoient l'approcher que dans
 le cas d'extreme necessite dit-on. Cependant le roi mourut et l'administra-
 tion du royaume tomba entre les mains de sa mere, la connaissance des
 verités chrétiennes lui avoit rendu la Religion au moins respectable; sa mere
 qui ne pouvoit concevoir des verités qu'elle haïssoit, commença par des
 mesures pour détruire la Religion s'il lui avoit été possible, elle ordonna



110 3

D'arrêter tous les chrétiens et les mettre à toute sorte de question et de les torturer jusqu'à ce qu'ils eussent déclaré tout ce qu'on soupçonnoit qu'ils savaient relativement à la Religion chret. le temps ne me permet de vous les expliquer. Je prie le bon Dieu de compassion sur leurs torts. S'apercevant qu'il n'y avoit par moyen de demeurer long temps caché sur lui même en se livrant entre les mains de ses futur<sup>s</sup> bourreaux. tous les chrétiens en age de puberté furent arrêtés et torturés. les confesseurs de la foi et les apostats qui avoient eu une part spéciale dans la propagation de la foi furent massacrés.

\* Deux baguettes et les autres apostats condamnés à un exil perpétuel. le pere Lehon fut conduit piégés dans de 20 mille environ de s'chool capitale du royaume entre deux haies de soldats les oreilles et amies de grande contrelards. arrivés au lieu du supplice un d'entre ces bourreaux croisés sur la tête lui toucha la tête. je me suis informé de ce qui avoit été fait de son corps. le chrétien ne les dit pas.

J'ai fait bien de enquêter sur ce qui s'étoit passé à la mort et après la mort de chrétiens massacrés en force. voici les seuls faits que l'on me rapportés comme miraculeux:

un nommé Laurent Jac originaire de Houang nous il village de la province de Tchong tching to fut arrêté avec les chrétiens voisins et condamné à frapper sous les verges il souffrit ce supplice sans aucune plainte et encouragea les chrétiens à confesser generousement le nom de J. C. pendant que les satellites et le mandarin cherchaient par leurs exhortations et leurs menaces à les faire apostasier Laurent leur exposa de leur rappeler les verités éternelles et de les encourager à perséverer fidelement jusqu'à fin. le mandarin irrité par la conduite de Laurent le condamna à perir sous les verges. il en avoit reçu une centaine de coups et les bourreaux se croyoient mort. quelque temps après il reparut en aussi bonne santé que si l'en eut reçu aucun coup. le satellite admirant ces evenements miraculeux, je ne puis perir sous les verges dit Laurent mais vous pouvez m'étrangler. on ne connoit aucun miracle operé après la mort et son intercession ni à son occasion.

Des satellites préparés pour garder le cadavre d'un nommé Paul y mis à mort pour sa foi voyant pendant la nuit la fosse illuminée par furent en avisés son épouse et lui dirent: ne t'attriste pas sur la mort de ton mari, certainement son sort est heureux; nous avons vu la fosse toute brillante de lumière.

[Provider:article] Download by IP 121.190.18.182 at Saturday, September 14, 2019 6:35 AM

[원문 112쪽]<sup>2)</sup>

+  
J.M.J.

M.M. direct.  
du Séminaire  
des Miss.  
étranger.  
Paris.

[Reçue le 18 mai 1838]<sup>3)</sup>  
[9 X<sup>br</sup> 1836]<sup>4)</sup>

Monsieur et très cher Confrère,

J'ai eu l'honneur de vous envoyer en Avril dernier le récit de mon entrée en Corée avec quelques notices sur ce pays; je suppose que vous l'avez reçu et je passe à celui des connaissances que j'ai pu recueillir sur l'origine et l'état de la Religion chrétienne.

Il y a une cinquantaine d'années un lettré Coréen, parcourant quelques ouvrages composés en langue chinoise par le R.P. Mathieu Ricci, observa dans les remarques de l'éditeur que la doctrine de Ly Mato (nom chinois<sup>5)</sup> du R.P. Ricci) leur auteur était vraie et établie sur des fondements inébranlables. Il fit part de cette nouvelle à quelques-uns de ses amis et résolut d'en prendre des informations; il envoya à ce sujet à Peking un de ses amis aussi nommé Ly avec les ambassadeurs du roi. Ly entra dans l'Eglise des R.R.P.P. Jésuites Français, alors gouvernée par les R.R.P.P. Lazaristes<sup>6)</sup> Français. Le R.P. Gueslin<sup>7)</sup> le reçut, lui fit l'apologie de la Religion chrétienne, la lui fit goûter et

1) A-MEP V.1260, ff.109~117, 자필. 참고한 기존의 판독본은 《Monsieur Maubant, Lettres de 1832 à 1839 (2me Ed.)》, 지정환 신부, 2006, 이하 '지(2006)'. 원문과 대조하고 최세구(제제구) 신부의 교정과 코멘트를 반영하여 판독본을 만들었다. 원문 그대로 판독하되 다음의 원칙을 두었다. 1. 몇몇 단순한 철자오기와 예전의 표기는 현대어법에 맞게 고쳤다. 모방신부는 반과거의 어미 대부분과 일부 명사·동사어간에서 -ai- 대신 -oi-를 썼고, sc(현대 s)를 썼고, 악센트(특히 accent aigu)와 연결선을 안 쓴 경우가 많다. 예전 표기와 현대 표기가 혼용될 경우에는 그대로 두었다. 예전 표기 payen은 그대로 두었다. 2. 문장의 첫 글자와 고유명사의 첫 글자가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문자로 고쳤다. 모방 신부는 거의 대부분 소문자로 썼다. 3. 문맥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문장부호(쉼표·마침표·물음표 등)를 삽입했다. 모방 신부는 특히 쉼표를 안 쓴 경우가 많다. 4. 문맥상 필요한 단어가 빠져있을 경우 < >괄호에 넣어 삽입했다. 5. 삭제 표시와 밑줄과 밑줄입표는 모두 원문을 따랐다. 6. 판독이 어려운 자리에는 글자수만큼 \*표시를 했다. 7. 기존 판독과 언급할 만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각주를 달았다. 8. [ ] 괄호 안 내용은 모방신부의 글이 아니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편집자의 삭제 제안 부분이다.

2) 원문 112쪽 : 이 서한은 편집 과정에서 잘못 정리되어 있다. 원문의 109~112쪽은 내용상 112쪽, 109쪽, 110쪽, 111쪽 순으로 배치해야 하며 113~117쪽은 순서가 맞다.  
원문에서 모방 신부가 오른쪽 여백에 서한쪽번호 '1'을 썼고, 문서정리자(C)가 왼쪽 여백에 서한번호 '21'을 썼고, 문서정리자(D)가 서한쪽번호 '112'를 썼다.

3) Reçue le 18 mai 1838 : 문서정리자(A)가 썼다.

4) 9 X<sup>br</sup> 1836 : 문서정리자(B)가 썼다. 지(2006)에서는 문서정리자(A)와 구별하지 않고 표기했다.

5) 행간 원문

6) Lazaristes 원문



embrasser<sup>8)</sup>; il le baptiza sous le nom de Pierre, lui donna une collection de livres chrétiens<sup>9)</sup> et le renvoya dans sa patrie, lui recommandant d'annoncer cette doctrine seule, sainte, salutaire et absolument nécessaire aux hommes pour ne pas périr et souffrir éternellement; et de revenir ensuite raconter les fruits<sup>10)</sup> qu'aurait produit cette divine semence. De retour dans sa patrie, Pierre y exposa à ses amis les instructions qu'il avait reçues à Peking, et leur<sup>11)</sup> communiqua les livres chrétiens qu'il avait apportés. Un grand nombre goûta les vérités saintes qu'ils renfermaient et embrassa la Religion<sup>12)</sup> chrétienne. Ils apprirent, ou par la lecture des livres chrétiens<sup>13)</sup>, ou par les relations de Pierre Ly, qu'il y<sup>14)</sup> avait deux classes de chrétiens dans l'église, l'église enseignante et l'église écoutante. Ils s'imaginèrent pouvoir eux-mêmes faire parmi eux cette distinction; ils élurent un évêque et au moins trois prêtres. 6 ans après ils revinrent à Peking, racontèrent cette merveilleuse organisation et les progrès de la divine semence en Corée. On leur enjoignit de détruire cette organisation<sup>15)</sup> sitôt qu'ils seraient de retour. Ils demandèrent un Missionnaire. C'était le temps où la France, en proie aux fureurs de la révolution, ne pouvait plus pourvoir à l'entretien de ses Missions. Le R.P. Gueslin ne pouvait donc<sup>16)</sup> seconder leurs vœux

[원문 109쪽]<sup>17)</sup>

s'adressa à M<sup>gn</sup> de Peking et le pria de leur envoyer un Missionnaire. Le prélat accéda aux sollicitations du R.P. Gueslin mais<sup>18)</sup> à condition que cette nouvelle Mission lui appartienne en droit<sup>19)</sup>. Il envoya il y a environ 45 ans<sup>20)</sup> un prêtre chinois originaire du Kiang nang nommé Jacques Tchou. Ce missionnaire passa un an à étudier la langue ~~chinoise~~ coréenne<sup>21)</sup> et<sup>22)</sup> commença ensuite à exercer le St ministère. La première ou seconde<sup>23)</sup> année, le roi apprit qu'un étranger, ~~était~~ ministre de la religion chrétienne, était entré dans son royaume. Il fit appeler 3 lettrés qu'il soupçonnait auteurs de son introduction. Il leur fit diverses questions sur la religion chrétienne et les renvoya sans avoir manifesté aucune intention ennemie de la Religion. Quelque temps après il apprit que ces 3 lettrés lui en<sup>24)</sup> avaient imposé, il les appela de nouveau dans un lieu à l'écart et les fit mettre à mort. On dit que c'était un des rois les plus savants qui aient régné en Corée, il avait lu quelques livres chrétiens; il fut frappé de la vérité de Notre Sainte Religion, mais il n'eut pas assez de courage pour l'embrasser. Cependant une femme de fortune qui désirait de se faire chrétienne, craignant pour le sort du père Tchou, lui prépara un asile<sup>25)</sup> moins dangereux<sup>26)</sup> dans ses appartements. En corée comme en Chine, nul étranger ne peut pénétrer dans les appartements

7) 원문대로. Ghislain의 오기로 추정된다. 이하에서 모두 원문대로 두었다.

8) embrasser 원문. 지(2006). embrasser 제제구

9) chrét. 원문

10) les fruits 행간 원문

11) le † 원문. leur 지(2006)

12) Relig. 원문

13) chrét. 원문

14) 행간 원문

15) organi † 원문. organisation 지(2006)

16) pou †ait donc 원문. 지(2006)

17) 원문에서 모방 신부가 왼쪽 여백에 서한쪽번호 '2' 를

썼고, 문서정리자(D)가 오른쪽 여백에 문서쪽번호 '109' 를 썼다.

18) 행간 원문

19) appartien droit 원문. appartienne en droit 지(2006)

20) 행간 원문

21) 행간 원문

22) 판독누락 지(2006)

23) La p<sup>re</sup> ou s<sup>de</sup> 원문

24) lui en 행간 원문

25) azile 원문. 지(2006)

26) moins dangereux 행간 원문

intérieurs. C'était une femme de tête, mais peu instruite de notre morale. Elle avait un époux, infidèle comme elle alors, mais qui ne partageait pas ses sentiments. Elle n'osait traiter avec lui une affaire aussi secrète et aussi importante que celle de cacher chez soi le père Tchou. Une pernicieuse coutume des grands est d'avoir au moins une concubine, sans aucun avis du Père, elle donna une concubine à son mari et l'envoya loin de la ville dans une maison de campagne. Ensuite elle fit venir ~~chez elle~~ le père Tchou chez elle. Lorsqu'il apprit la faute de cette femme, il la réprimanda sèchement, dit-on. Pourquoi cette femme ne rappela-t-elle pas son mari? Sans doute le cas du père Tchou fut très difficile. Il paraît que les temps étaient plus difficiles encore qu'ils ne sont aujourd'hui. Le père Tchou ne put sortir que dans deux ou trois endroits pendant ~~tout~~ l'espace de 6 ans qu'il vécut en Corée. Les chrétiens ne pouvaient l'approcher que dans le cas d'extrême nécessité, dit-on. Cependant le roi mourut et l'administration du royaume tomba entre les mains de sa mère. La connaissance des vérités chrétiennes lui avait rendu la Religion au moins respectable; sa mère qui ne pouvait concevoir des vérités qu'elle haïssait ~~commença~~ prit des mesures pour détruire la Religion s'il lui avait été possible. Elle ordonna

[원문 110쪽]<sup>27)</sup>

d'arrêter tous les chrétiens et de les mettre à toute sorte de question et de les torturer jusqu'à ce qu'ils eussent déclaré tout ce qu'on soupçonnait qu'ils savaient relativement à la Religion chrétienne<sup>28)</sup>. Le temps ne me permet de vous ~~les~~ expliquer les différentes tortures que l'on fait subir en Corée<sup>29)</sup>. Le père Tchou, touché de compassion sur leur sort, s'apercevant qu'il n'y avait pas moyen de demeurer longtemps caché, fut lui-même ~~ou-pl~~ se livrer entre les mains de ses futurs bourreaux. Tous les chrétiens en âge de puberté furent arrêtés et<sup>30)</sup> torturés. Les confesseurs de la foi et les apostats qui avaient eu une part spéciale dans la propagation de la foi furent massacrés, les autres apostats condamnés à un exil perpétuel. Le père Tchou, deux baguettes piquées dans les oreilles et croisées sur la tête<sup>31)</sup>, fut conduit à 2 milles environ de Sehoul, capitale du royaume, entre deux haies de soldats armés de grands coutelas<sup>32)</sup>. Arrivé au lieu du supplice, un d'entre ces bourreaux lui trancha la tête. Je me suis informé de ce qui avait été fait de son corps. Les chrétiens ne le savent pas.

(다음 호에 계속)

(판독 · 번역 교정) 정혜정 / 본 연구소 연구원

27) 원문에서 모방 신부가 왼쪽 여백에 서한쪽번호 '3' 을 썼고, 문서정리자(D)가 그 옆에 문서쪽번호 '110' 을 썼다.

28) chrét. 원문

29) les différentes ~ en Corée 행간 원문

30) 행간 원문

31) deux baguettes ~ sur la tête 왼쪽 여백에 덧붙임. 원문

32) coutelards 원문, 지(2006). coutelas 제제구